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동구 동계마을·남구 덕남마을·북구 어운마을 등 3곳 노후 주택정비·마을안길 확장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광주시 동구 동계마을과 북구 어운마을 등지의 취약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도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하 새마을사업)에 선정된 동구 동계마을과 남구 덕남마을, 북구 어운마을 등 3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9년 사업비가 일부 교부됨에 따라 우선사업으로 승인된 동구의 두꺼비하우징프로젝트와 노후주택 정비, 남구

의 마을안길도로 확장과 어린이공원조성, 북구의 노후위험시설 개량과 공폐가정비 사업 등을 우선 진행한다.

새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환경 개선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인프라 확충과 함께 ▲문화·복지사업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도 지원할 것을 말한다.

총 사업비 93억원의 70%인 65억원이

국비로 지원돼 국가공모사업에 비해 지방비 부담이 적어 시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각 자치구에서 총괄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를 위촉해 주민협의체 구성,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면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주택 정비,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을 2022년까지 4년간 진행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가 2015년부터 추진중인 양동 발전마을, 월산동 달팽이문화마을, 양동 고령친화마을사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현재 거점공간인 커뮤니티센터, CCTV·보안등 정비, 집수리지원사업 등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서구 발전마을은 공·폐가와 나대지를

활용해 청년창업식당, 마을전망대, 주민커뮤니티센터, 주차장, 텃밭 등을 조성해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리는 모범적인 마을공동체활동의 수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 임찬혁 도시재생정책과장은 “도시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새마을사업은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된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며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지역의 생활인프라가 확충되고, 노후화된 건축물,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 해소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새매·솔부엉이·삼 구조, 자연으로 보냈어요

광주야생동물센터 성과 특특 상반기 42종 157마리 구조

광주지역에서 구조되는 야생동물 중 새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올해 1월 본격 운영을 시작한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이하 ‘광주 센터’)가 상반기에 총 42종 157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는 지난해까지 구형별 지정 동물병원 5곳에 위탁해 연평균 120여 마리 구조실적을 보였지만, 올해 야생동물 전문 ‘광주 센터’가 설치된 후 구조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광주지역에서 구조된 야생동물

은 조류가 137마리(88%)로 가장 많고, 포유류 17마리(11%), 파충류 3마리(1%) 순이다.

새매와 솔부엉이, 삼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물 8종 32마리도 포함됐다.

위급상황의 구조 동물 157마리 중 41마리는 치료와 재활과정을 거쳐 처음 구조된 지역을 우선해 자연으로 돌아갔다. 현재 40마리는 치료·재활중이다.

구조 원인으로서는 어미를 잃은 ‘미아’ 사례가 76마리(49%)가 가장 많고,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을 보지 못하고 부딪힌 ‘충돌’ 사례가 44마리(28%), 차량충돌·위급근아·질병감염 등 사례가 37마리(23%) 순이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 업무협약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광역시-광산구-한국토지주택공사간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백인철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정중제 행정부시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전남도 하반기 산하기관 43명 통합채용

다음달 19일~23일 원서 접수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 산하 공사 출연기관 통합채용을 통해 43명을 선발한다.

기관별로는 전남개발공사 8명·순천의료원 12명·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2명·전남도문화관광재단 3명·전남생물산업진흥원 14명·전남신용보증재단 2명·한국과학진흥원 2명 등이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19일부터 23일까지 채용 예정 기관별로 한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채용 기관별 누리집,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시스템(클린아이잡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가 주관하는 필기시험은 9월 21일 시행하며,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발은 채용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일반상식과 전공으로 채용기관별 모집 직렬에 따라 다르게 출제하므로 응시자들은 기관별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을 일원화해 자체 주관하고 있다.

통합채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 19명, 2018년 상·하반기 60명, 2017년 상·하반기 25명을 채용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친일 시설물에 단죄문 설치한다

3차 총회 열어 의견 수렴

광주시는 29일 광주시청에서 시장자문회의의 3차 총회를 열어 친일 잔재 청산 단죄문 설치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친일 잔재 조사 태스크포스팀 운영, 연구용역을 통해 비석, 누정 현판, 교가, 군사시설 등 65개 친일 시설물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중 25개 친일 시설물에 먼저 단죄문을 설치하고 나머지 친일 시설물은 단계적으로 단죄문을 설치할 계획이다.

단죄문은 해당 인이나 시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적시해 친일 행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절판으

로 제작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후세에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단죄문 설치 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달라고 했다.

광주시는 회의 내용을 토대로 단죄문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이른 시일 내 단죄문 제막 행사를 열 예정이다.

시장자문회의는 광주시가 수여하는 각종 상 가운데 최고의 영예와 전통을 가지는 역대 시민대상 수상자 중 82명으로 구성됐으며 총회와 5개 소위원회(학술·예술·체육·지역경제·사회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다문화가족지원 우수 프로그램 공모

광주시는 오는 8월 2일까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하반기 다문화가족지원 우수 프로그램 사업을 공모한다.

광주 거주 외국인인 2017년 11월 기준 3만4412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인 배우자를 포함한 다문화 가족은 2만473명이다.

이번 공모는 다문화가족이 편견 없는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전 성장 지원, 다문화 부모 교육 등의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상반기 공모를 통해 다문화 전래동화 시리즈 편찬’과 스포츠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관계개선 사업인 ‘다같이 함께 하자! 세상 속으로’ 2개 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하반기 공모에선 2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다문화이해 감사 양성 및 매뉴얼 개발 사업’, ‘다문화 더하기 더 나은 세상’ 등 3개 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했다.

신청 자격 요건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광주시 등록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다. 접수된 프로그램은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수행의 전문성, 효율성,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 선정하게 된다. 문의 062-613-3242.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의회 “日 경제보복 중단해야”

일본제품 불매운동 전개

전남도의회는 29일 도의회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보복적인 경제 도발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도의원들은 “경제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인 수출규제는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고 양국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정용 피해 배상 판결 존중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 진심 어린 사과를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사태가 해결될 까지 일본방문을 중단하고 전 도민과 함께 강력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윤재 의장은 “일본 정부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반 외교적 망국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566-9988

J16 40 point 8 5 1

J10 20 point 1 6 5 2 4

J8 14 point 6 8 2 4 7 5 8 1

J7 12 point 2 5 1 6 4 9 7 8 3

J6 10 point 1 3 0 7 5 8 4 9 2

J5 8point 2 4 6 3 7 1 2 8 0

J3 6point 4 6 2 8 1 0 9 7 3

J2 5point 0 7 6 2 1 4 3 0 2

J1 4point 0 0 1 2 9 9 0 9

J1* 3point 0 0 0 0 0 0 0 0 0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